

‘장흥한우삼합’ 브랜드화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

한우·키조개·표고버섯 포함 대표음식 군, 공식 이름 짓고 지재권 확보키로

장흥군은 5일 “지역전통산업인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의 삼합음식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로 수요충족을 도모하기 위해 브랜드 네이밍을 ‘장흥한우삼합’으로 이름 짓고 상표 및 디자인등록 출원중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의 지역특산품은 삼합음식으로 개발

돼 토요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식당가에서 판매돼 왔으며, 키조개삼합, 소고기삼합, 한우삼합, 장흥삼합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삼합음식에 대한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네이밍과 포장디자인을 개발에 나섰다. 서울과 광주 등 도시권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장흥 음식에 대한 인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재료와 담백한 맛, 착한 가격 등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돼 왔던 음식 명칭을 ‘장흥한우삼합’으로 일원화하면서 지역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깨끗한 환경 및 최고의 친절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담양교육청, 초등 영어교사 대상

‘영어회화 즐기기’ 큰 호응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식)이 지난 3일 초등교원들의 근무지를 중심으로 한 맞춤식 현장 연수의 첫 단추로 ‘영어회화 즐기기’ 개강식을 가졌다. <사진> 담양 동초등학교 내에 자리한 담양외국어체험센터에서 영어담당교사 및 희망 교원 중심으로 20여명과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강식을 시작으로 영어회화 즐기기는 올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46시간(3학점) 운영된다. 강사는 담양외국어체험센터 원어민 1명이 맡고 고서초, 창평초, 월산초의 TaLK 장학생 3명이 강사를 보조한다. ‘영어회화 즐기기’는 담양교육지원청만의 특색있는 교원연수료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교원들에게 자율적인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영어회화 실력을 쌓고, 현장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교육지원청 박인식 교육장은 “이번 영어 연수과정 개설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현장 중심 연수체계 구축·운영으로 학교와 지역교육청, 교원 연구단체 등의 영어교실수업개선 과제 해결의 기회가 제공됐다”고 전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전남도 ‘통합의료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한방·의약·생물산업 인프라 구축 장흥에 ‘통합의료센터’ 건립 지원”

전라남도가 한방·의약·생물·식품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해 통합의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5일 “지난 3일 각계 통합의료 전문가 및 시군 보건 의료 관계자, 협회·단체, 주민 등 200명을 초청, ‘통합의료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이란 주제의 통합의학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선 전남이 그동안 서양의학과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융합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통합의학의 발전 방향과 의료서비스 확대, 통합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심포지엄은 이진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권오봉 전남



화순 힐링푸드 음식 품평회
화순군은 오는 16일부터 4일간 열리는 ‘2013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에 출품할 음식에 대한 품평회를 지난 2일 오후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푸드테스트분야 남도약선연구회 등이 개발한 파프리카족발, 우렁이각시주먹밥, 꽃송이볶음밥 등 78가지의 건강음식이 선을 보였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계약심사 사전검토제’ 시행

대형 사업 발주부서 문제점 등 점검 민원·하자여부 차단
나주시는 5일 “지난 1일부터 ‘계약심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사전 검토제는 시의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보완하고 대형사업 시행에 따른 발주부서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유지관리, 운영방안은 물론 파급효과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다. 또 설계내역서에 특정 공법 및 물품사용을 지양,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해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법규 및 행정절차상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1000만원 이상)를 통해 지난 2011년 112건 심사에 21억5000만원, 2012년 146건 심사에 25억4000만원을 각각 절감한 바 있다. /나주=손영희기자 ycsn@

전주시-완주군 통합 주민투표 6월 26일 실시 유력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6월26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완주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찬성률이 높은 전주지역은 시의회의 의결로 통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농번기가 6월 하순쯤 끝나고 공직선거가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26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군은 정부가 이달 말께 통합 권고를 내리면 6월 초 투표일을 확정, 공

전북

부안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혜 분양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 적발...격포 요트계류장 불법설계도 눈감아 줬
부안군의 농공단지 특혜 분양과 격포 요트계류장 불법설계 눈감아 의혹 <광주일보 2011년 1월6일자 11면, 2011년 4월17일자 11면>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부안군 농공단지 특혜 분양과 관련 감사에 착수해 부안군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가격에 업체에 분양하면서 막대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입주업체의 요구에 따라 공단

순창군 울 640여 가구에 상수도 공급

순창군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올해 18억 원을 투자해 20개 마을 640여 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시급함에 따라 올해는 순창읍 무수마을 등 6개마을에 대한 공급관로 기반이 구축됐다. 또 순창읍 신촌마을 등 14개 마을은 공사가 진행중으로,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상수도 미공급지역 40여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해 현재 7377가구 1만880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보급률을 현재 63%에서 2018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lee@



“멋진 해양경찰 될래요”
군산해양경찰서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실시한 ‘해양경찰 체험행사’가 어린이들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속에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최신에 경비함의 자동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단신

고창군, 가정의 달 맞아 ‘홀로 어르신 위안잔치’

고창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홀로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행복 나눔 홀로 어르신 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창군이 주최하고 노인돌보미회 주관, 한수원(주) 영광원 자력본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또 제

남원 보절면 ‘자전거 민원 기동대’ 출정

남원시 보절면(면장 양정진)이 3일 자전거 민원 기동대 출정식을 가졌다. 보절면 5일 “농민들에게 민원 업무처리 시간 절약 등을 위해 현장과 골목 고살길을 누비며 현지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자전거 민원 기동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도로공사 전북지사 수목원 일요일도 개방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전주시 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을 5일부터 일요일에도 개방하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목원은 이와 함께 주말 관람객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는 생태해설과 식물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백성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갤러리정 ‘엄마의 장롱 전시회’ 열려

정읍시내의 갤러리정(정)이 개관 기념 ‘엄마의 장롱’ 전시회를 5월 한달간 열고 있다. 전시회는 은행원에서 갤러리 관장으로 변신한 정명성(50)씨가 어머니가 한평생 장롱에 보관해온 삶의 흔적을 공개하는 자리이다. 어머니가 짧은 시절 홀로 된 뒤 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며 틈틈이 만든 가족들의 옷가지와 보자기, 모자, 옷달간 열고 있다. 그의 어머니 이정자 여사는 중견 연예인들이 indoss한 한복을 주문할 만큼 솜씨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정읍=백성기기자 parkks@